



“가슴속 길은 나의 푸른 꿈
학문의길 끝까지 지킬터”

■ 원로와의 대담

서울대 명예교수 **崔 基 哲** 박사

대담 / 朴 澤 奎 <건국대 이과대학장/본지 편집위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여전히 건강하신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려주십시오.

21세대부터 교단 외길

민물고기보존협회 창립

그냥 평범하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녁10시에 취침, 5시에 기상하는 습관을 14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고 자연에서 배우는 말하자면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이 건강의 요체라 믿고 있어요. 작년 9월4일에 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를 창립해서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국민학교를 2년 월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릴때 이야기를 들

충남 대전시(전에는 대전군)에서 2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대전 공립보통학교(현 三星國民校)에 입학했는데 동급생 중에는 장기간 학생도 있었고 연장자로는 21세 된 학생도 있었어요. 우리 마을 40호 중에서 내가 가장 먼저 보통학교에 입학했어요.

두번 월반해서 6년제를 4년만에 졸업했지요. 1925년에 6년제 경성사범에 입학해서 21세 되던 31년에 졸업했어요. 경성사범에는 전 학년에 조선인 학생 1백51명이 있었고 내가 입학할 때만 해도 조선인 지원자 1천5백명 중에서 12

명만 합격하는 정도였어요. 일본인들의 교육정책이 이처럼 편협했지요. 졸업한 해에 전남 순천에 소재한 유일한 국민학교인 춘천공립보통학교(현 순천남국민학교)에 부임해서 교사생활을 시작했어요.

6학년 담임을 맡았던 애송이 교사 시절, 세상물정을 전혀 모르는 순진한 선생으로서 겪었던 일이 회상되는군요.

어느날 파리, 모기를 소재로 가르치고 있는데 교장선생 안내를 받으면서 어떤 사람이 수업을 참관하러 교실에

왔어요. 그때 교실에는 정면 흑판 위 벽에 일장기나 천황폐하 사진을 걸어놓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런데 내가 담당한 학급 교실에는 내가 자작한 급가(級歌)를 써서 액자에 담아 걸어놓았지요.

“동산엔 해가 떠서 빛을 내리고
남산엔 봄이 와서 피콜새가 우네
사랑하는 우리 昇州, 우리 힘으로...”
(옛날에는 순천을 승주라 했어요)

그 신사는 이 액자의 글을 눈여겨 보더군요. 누구인지 모르는 분이고 또 별로 신경쓸 일도 아닌 것 같아서 그대로 수업을 계속했지요. 그런데 교장선생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게 심상치 않은 사태가 벌어진 것 같더군요.

“국민학교에서 애들에게 과리, 모기를 가르쳐서 뭐하느냐”는 거였어요. “당신 말을 삼가하시요. 교과서에 나온 것을 실물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어쨌다는 거요” 무식하다고 오히려 내가 질책했지요. 비웃는 듯 웃는 그 모습에 화가 더 치밀더군요. 교장실에 불러갔는데 그 분은 도학부과에서 나온 시학(요새의 장학사)이어서 막강한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세월이 흘러 서울사대 교수시절 그때 시학이었던 분이 총무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최교수 자르는 건데 그냥 안했지요” 하면서 웃더군요. 시학제도라는게 있는지도 몰랐던 순진한 국민학교 교사시절의 추억 담긴 회상이지요.

선생님께서는 순천국민학교에 6년 재직하신 다음 중등교사 검정시험에 합격했고 전주사범부속국민학교로 옮겨서 근무하게 되지요.

1935년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문검

동물학과에 합격하였고 전주사범부속국교에 근무하면서 사범학교 동물강의를 담당했어요. 45년 해방되던 해에 청주 사범 교장으로 1년 재직, 다음해 충주사범학교가 설립되자 교장으로 부임, 48년 3월까지 근무했지요. 48년 3월 서울대로 옮겼고 76년까지 28년간 재직했어요. 57년부터 1년간 미국 피버디대와



◇인물고기연구에 한 평생을 바쳐온 최기철 박사(좌측)가 박태규 본지 편집위원장과 대담하고 있다.

밴더빌트대에서 연구하였고 66년 「비지락의 조기 발생과 성장에 관한 연구」로 서울대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선생님 가족이야기를 들려 주십시오.

35년에 결혼(부인 李福順 여사는 7년 전 76세를 일기로 작고)해서 금혼식을 함께 보냈지요. 3남5녀중 장남 滿錫(59세, 럭키화학중앙연구소장), 차남 信錫(53세, 충남대 이공대학장 생물학<패류> 전공), 삼남 浩錫(48세, 영훈고교 수학교사), 장손 鍾珍(24세, 미국 오하이오대학 재학)을 비롯하여 친·외손 합해 14명입니다.

서울대 교수시절과 부산 피난시절을 회상하신다면...

피난때 우장춘박사 만나

48년 서울대에 오니까 책상과 책장

몇 개만 있더군요. 연구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김준민교수(식물), 장형두교수(식물) 등과 함께 사대 생물과의 초창기의 어려움을 극복하였던 일에 눈에 선해요. 전쟁이 일어나자 처음에는 전라도에 가서 전남국민교, 중학교 교사 강습회에 참석하여 흑산도를 중심으로 홍도를 왕래하면서 강의를 했어요.

타도에서 피난 온 교사들을 전남도 관내에 취직시키는 일에 앞장을 섰지요. 부산으로 옮겨서 전시연합대가 개교하기 전에 미니학교를 개설했어요. 부산 유지에게 부탁해 건물 2층에 있는 다다미를 4장 칸 방에 책상 놓고 학생을 모았지요. 전국 어느 대학 학생이건 생물학과 학생이면 무조건 공부하도록 했어요. 38명의 학생이 공부했어요. 전시 중이라도 실험을 전혀 안하고 졸업시킬 수 없어 수산시험장에 가서 바다고기를 얻어 실험했고 부산 송도에 있던 가축위생연구소에 가서 실험했는데 당시 동래에 계셨던 우장춘박사의 도움도 받았어요.

고생하면서 대학을 억지로 졸업한 당시 학생들 중에 빼어난 인재들이 많았지요. 가끔 그때 졸업생들 이름이 기억

속에 되살아나곤 합니다.

선생님께서도 민물고기를 전생애를 걸친 연구 주제로 삼아 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많은 연구자를 비롯해서 가정주부, 국민학교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최기철교수-민물고기 박사의 등식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전공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 주십시오.

전국 1천5백여곳 답사

원래 패류생태학을 전공하였는데 미국에 갔을 때만 해도 패류생태학적 연구의 꿈을 실현하고자 여기에 관심을 두었지요. 서해안의 간만의 차가 심한 곳의 조간대(조수가 드나드는)에 서식하는 패류를 생태학적으로 연구하고 싶었지요. 63년으로 기억되는데 미국에서 돌아온 다음 졸업생들의 취직알선을 위해 강릉에 간 일이 있었어요. 대관령에서 보니 조각조각 떠있는 구름사이로 대관령 주위가 마치 록기산맥의 고원지대와 비슷한 것을 보았어요. 특히 산맥이 갈 날갈지 않은게 록기산맥과 비슷했어요.

동쪽에 사는 동물이 서쪽으로 못 오지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쪽으로 흐르는 강에 서식하는 생물과 동쪽으로 흐르는 강에 서식하는 생물이 다르다는 거지요. 가재만 해도 그래요. 말하자면 동물지리학적 관점에서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어류에 심해요. 강릉에서 용건을 마치고 설악산으로 들어갔어요. 대전 태생이라 물고기를 좀 알고 있었지요. 어릴때 보았던 피라미, 갈겨니, 모래무지 등이 이곳에는 전혀 없었어요. 정말 신기한 느낌마저 들더군요. 동쪽에 있으면 서쪽에는

없고 서쪽에 있으면 동쪽에는 없는, 있다, 없다는 동서원리(東西原理)에 때로 당한 거지요. 그런데 더 놀랄만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동쪽에는 없어야 될 고기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쉬리, 새코미꾸리, 새미 등은 서쪽 고기인데 동쪽인 삼척에 있었어요. 지질학 교수들에게 물었더니 서쪽으로 흐르는 강이 갑자기 동쪽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였어요. 서쪽에 섬이 많은데 빙하기에 대륙과 연결되었던 이러한 섬들이 빙하기가 끝나면서 떨어졌고 섬의 민물고기들도 내륙의 민물고기가 되었지요. 어디에 어떤 민물고기가 살고 있는지 본격적인 기초조사에 착수했지요.

전국8도 2백9개시·군의 1천5백여곳에 이르는 동·면을 직접 찾아다니며 10년에 걸쳐 한국 민물고기의 전국적 분포를 조사하여 한국의 자연, 담수어편 전 8권에 담아 발간했어요. 이 연구는 매우 방대한 작업이었어요. 민물고기를 찾아 전국각지를 다니면서 직접 보고 들었던 에피소드, 민물고기의 속사정 등을 담아 수필집형식의 책도 아울러 몇 권 냈습니다. 정년퇴임 이후 18년간 모두 30권 정도의 책을 출간했어요.

요새 정년퇴직하는 제자들을 보고 앞으로 40년을 바라보고 그때까지 일하려고 권유하고 있어요.

선생님의 좌우명을 말씀해 주시지요.

“최대 불행은 최고의 행복”

억지소리 같지만 ‘최대불행은 최고의 행복,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가장 행복한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학문

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가정에서 8남매를 그 어려운 격동기에 키우다 보면 정말 하늘이 무너져내릴 것 같은 엄청난 고난에 처하기도 했지요. 그럴 때마다 불행에 대처하는 자세, 불행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터득하게 됐어요.

나름대로의 인생관이라 하면 인생을 4기(期)를 거치면서 살게 된다는 진리를 깨달은 거지요.

①기초, ②발전, ③비약, ④원숙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거였어요. 당대의 최고의 교육자였던 율곡선생님이 바로 이러한 생애를 거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율곡선생이 글(논문)을 발표하면 중국이 발각 뒤집힐 정도였으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컸던 율곡선생은 4기를 깨끗이 사신 분이라 믿어요.

교수가 되기 위해 석·박사 논문 쓰기까지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고 이 기초과정을 성실히 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발전하더군요. 다음 단계로 비약을 위한 창의력 발휘, 끈질긴 노력을 거치면 학문이나 인생의 원숙기에 접어들게 되지요.

율곡선생의 인생관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앞으로 젊은이 못지 않은 푸른 꿈을 지니고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일에 열중하는 자세를 그대로 지키고 나가겠어요.

선생님 오랫동안 감사합니다. 여든다섯 되시는 분 답지 않게 건강한 모습으로 왕성한 의욕을 보이시는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건강하셔서 선생님의 꿈을 계속 펼쳐 나가시기를 독자들과 함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7